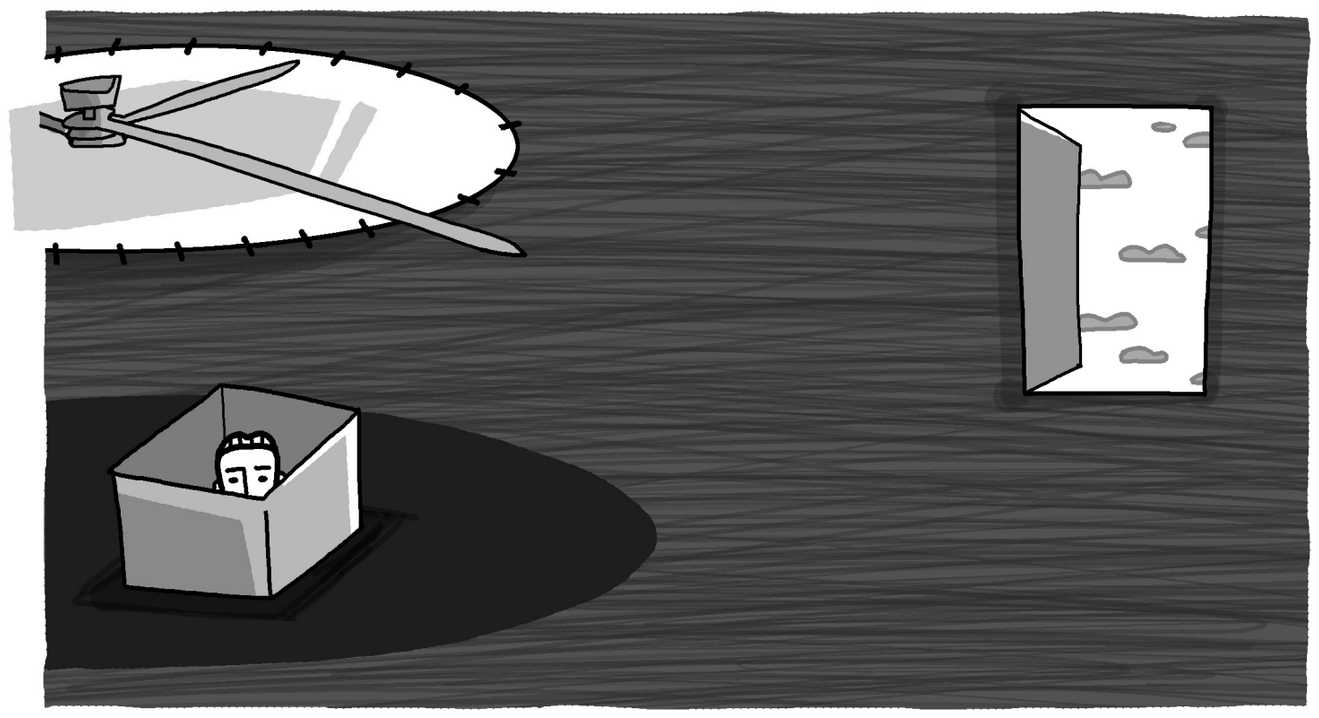
일심이 공해서 그것조차도 세울 게 없다


그림 · 최주현

큰스님 … 그리고 맛있는 줄 몰라요. 식빵도 큰 거 하나 사다 놓으면 그게 맛이 없지만 조그만 거 하나 사다 놓고 하나씩 별러 먹으면 참 맛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법문을 듣는 데도 항상 그냥 '아, 가면 듣는다.' 이걸로 끝나선 안 돼요.

우리는 음미해 볼 거 다 음미해 보고 체험할 거 다 체험하면서 안으로 굴리면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놓았을 때, 과거심과 미래심과 현재심으로 모든 것이 귀합될 때 귀합된 한마음의 그 한 점이, '일심이 공해서 그것조차도 세울 게 없다' 이 정도로 돼야 거기에서 참 생수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깨달아져야만이 자기를 이끌고 다니는 스승이 자기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를 다루면서 또 바깥의 스승은 이렇게 설법을 해 주면 그걸 안으로 받아들여서 안으로 굴려서 또 둘이 아닌 것을 배우면서 자꾸 나투면서, 이렇게 체험하면서 또 자기한테 놓으면서 또 돌아가거든요.

처음에는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했지만 나중에 나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또 상대방하고 나하고 둘이 아니게끔 나투면서 또 돌아가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부가 참, 우리가 날마다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들었으면 듣는 대로 날마다 생활하면서…. 또 여길 오더라도, 내가 안 봐도요, 여러분이 앉아 있으면 여러분 어디가, 허리가 구부러졌는지, 허리를 펴고 앉았는지, 다리가 저린지, 다리를 오그리고 앉았는지 하나하나 다 알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알고 있는 대신에 나도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앉아 있기만 하면 뭐, 수인 줄 아는데 그 마음 가짐가짐이 말이에요, 중구난방이에요. 요새 가만히 지켜보면 사람마다 중구난방이야. 이게 색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스님이 설법을 안 했다, 스님이 없다, 이렇게 우리끼리만 앉았다' 하는 게 벌써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았으면 벌써 자기를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자기 자부처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야지. 그 자부처라는 그 자체 한 점에 바로 스님네들의 마음과 역대 조사들의 마음과 모든 일체 사대성인들의 마음이 거기 포함돼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접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땅속에 들어가 봐야 지리를 알죠? 지리를 안다 하더라도 이 오선 줄이 한데 합쳐져야 되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삼각원형을 이룰 수 있어야만이, 그것은 또 우리가 오광주를 얻기 위해서, 즉 말하자면 오광주를 한데 합쳐서 여의주라고도 해요. 그런다면 그거를 얻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접근해서 우리가 나갈 때, 요거 하나를 알기 위해서도 요 물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의 질(質)이 어떤지, 물이라는 것도 알고 컵이라는 것도 알고, 이게 독약이 섞였는지 맑은 물인지 이것도 알아야 하고, 이 물의 생리도 알아야 하고 생명, 말, 뜻 이것도 알아야 되니까요. 어디서 온 것도 알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눈 간 데 귀가 가고 귀 간 데 몸도 가고 코도 가고 혀도 가고 다 통신이 가서 이것 하나를 들 수 있는 거거든. 알 수 있는 거거든.

그럼 한 가지만, 보기만 해도 이건 도가 아니다 이거야, 그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벌써 직감적으로 '아, 여기 이 산의, 이 땅의 혈맥이….' 이러면 벌써 거기 땅속 깊이까지도 전부 나와 있어, 동시에. 그러면 그걸 알기만 해서가 아니거든. 그 땅이, 즉 생명이 있어서 같이 말할 수 있고 서로 통신이 될 수 있어야만 돼요. '그 땅 질의 역량이 얼마나 있나' 그것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건 우리 사람들이 살아나오면서 '네가 역량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 아는 거나 똑같아. 이 땅 질이나 돌 질이나 이런 문제들도 깔축없어. 그렇기 때문에 땅을 보는 순간순간이 한 찰나에, 보는 순간 한 찰나에 오신통이 다 동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거기만 동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보는 데도 쫓아서 같이 들어가고 듣는 데도 쫓아서 같이 들어가고. 사람과도 그렇지마는 생물도 그렇고, 어떠한 미생물도 그렇고, 어떠한 무정물도 그렇고 우주의 어떠한 생명질, 항성, 행성, 또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인공위성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알고 기계의 모든 것을…, 이 인간이 복잡하게 기계화되어 있는 것처럼 됐듯이 기계도 아주 세밀하거든. 이 인체의 모든 세포가 아주 그냥 뭐, 이 두뇌만 하더라도 말도 못하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기계를 하나 만들어도. 그럼 그게 줄 하나만 잘못되고 혼선이 돼도 그건 통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묘해요. 인간이 얼마나 묘하기에, 묘하고 광대무변한 만법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로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사람이.

그런데 지금 저 위성이나 항성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인간의 두뇌가 그만큼 본래 그렇게 만법의 근원을 가졌기 때문에 물질로만이라도 책정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공부하는 거는 물질 그 자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시간과 공간이 없는 그 초에 의해서, 한 시간을 초로 잡을 수도 있고 초를 한 시간으로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공이 없는, 속도가 빠른 그러한, 즉 말하자면 속도가 빠르다 못해 아예 그냥 이렇게 놓여 있듯이 말이야, 이렇게 되는 문제들도 인간이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걸 인간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쓰고 있는 꼴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로 비유를 하건대 우리가 살림을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자지 못하는 시간도 있어요, 잠이 안 와서.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오늘은 잠이 안 오니까 잠을 못 자는구나. 아유, 두 시간밖에 못 잤어. 세 시간밖에 못 잤어.' 요렇게 생각들을 하거든. 그러면 그거밖에 못 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피곤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시간을 못 잤다고 하더라도 일 초로 정해 놓으면 한 시간이면 일 초가 얼마나 많아요? 네? 얼마나 오래 잤어요? 이해 안 가요? 한 시간을 일 초로 잡았다면 일 분만 자도 몇 시간입니까? 60시간이죠? 허허허, 보세요.

그러니까 늦게 가는 거, 속도가 빨리 가는 것, 비행기를 타면 속도가 빨리 가는데 여기는 마차를 타고 간다 이럴 때 어떻게 생각이 돼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 같아요, 위에서 볼 때. 허허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인간 이 자체가 1시간, 24시간 뭐, 이러고 가만히 그냥 그렇게 있으니까 이건 늙는 거예요. 빨리 늙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늙지 않죠? 왜 마음은 늙지 않을까요? 외려 철이 들고 늙지 않을까요? 마음은 빨리 돌아가고 육신은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허허허….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설법을 듣는 대로 그냥 무단히 넘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에 젊음을 소중하게 갖는 것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렸어요, 어느 정도는요. 다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건강하고 젊음을 갖출 수 있다 이러는 거는 한 시간을 일 초로 잡아서 자도 그것은 해롭지 않다. 또 잡아서 자는 게 아니라 아예 시간 탓도 하지 말고, 자게 되면 자고 안 자게 되면 안 자고 그래도 벌써 그 도리를 알고 그렇게 하면요, 그냥 한 시간을 자도 한 댓 시간 잔 거는 되거든요. 굳이 뭘 그렇게 따지지 않아도.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눈이 시글시글할 때가 있어요. 아주 정신은 말짱하고 잠을 안 잤어도 괜찮은데, 건강도 좋고 다 좋은데 눈이 시글시글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다면 이것은, 즉 말하자면 눈이 게을러서 같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된다. 자면서도 눈을 뜨고 자야 하고 눈을 뜨고도 잘 줄 알아야 한다. 이거 어렵게 들으시면 어렵지마는 우리가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꾸 체험을 해 보고 해 보고 하면 능숙하게 되죠. 왜, 보리밥 못 먹는다는 사람이 한 번 두 번 먹어 보면

☞ A18면으로 계속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19년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포교 – 생활 속 마음공부



일 정 2019년 5월 16일(목) ~ 18일(토)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지번) 신평동 150-8)
※5월 16일(토) 신경주역 → 황룡원간 셔틀버스 1회 운영 11시 30분 신경주역 출발.
(중식제공 12:10~13:00)
교 육 비 20만원
정 원 50명(선착순 마감)
문 의 031-470-3200(월요일 휴무)
웹사이트 http://edu.hansi.org

▶ 내면의 불성을 발견하고 마음의 힘 회복하기
▶ 지혜로운 소통으로 가정, 사찰, 사회에서 갈등을 해소하기
▶ 삶의 의미와 행복 찾기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5월 16일	5월 17일	5월 18일
마음공부와 치유	생활속 마음공부 : 원리와 방법1	특강 : 마음과 과학
주인공 관법 (한마음공생실천교육과정)	원리와 방법2 (둘 아닌 도리)	
	포교 및 활동사례	

교 재 건널강이 어디 있으랴(한마음출판사), 행복한 부모를 위한 마음공부(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참고도서 꽃을 피우는 나무(학지사/조계종 포교원 인증) / 둥근 입으로 둥글게 말해 주인공(성균관출판부) / 공부(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재단법인 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교육과정 확인 및 신청은 QR코드를 스캔하세요.